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 포 일	2021. 6. 29.(화)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해양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이상문, 사무관 안준영, 주무관 박은영 • ☎ (044) 200-5220, 5221, 5222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바다에서 세상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다

- 해수부, 6. 30.~7. 1.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6월 30일(수)부터 7월 1일(목)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된 국제행사이다. 지난해에는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New Normal, Reboot Ocean Industries)'이라는 주제 아래, 총 13개국에서 1,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포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을 비롯하여 해운물류·해양환경·해양관광 등 해양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여 실시간으로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은 공식 누리집(www.iiof.kr)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므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인천국제해양포럼' 검색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The World Calls, The Ocean Waves!)'라는 주제로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 세션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50여 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자원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바다의 잠재력에서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막식 직후 이루어질 기조세션에서는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쇼크 독트린>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실시간 온라인 연결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경영학 분야에서 '채찍효과*(Bullwhip effect)' 이론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황승진 교수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채찍효과) 공급망에 있어 수요의 작은 변동이 공급망을 거쳐 제조업체에 전달될 때 확대·왜곡되어 재고, 생산, 운송과 관련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현상

개막일 오후부터는 ▲글로벌공급체인망(GSCM)*의 변화와 미래전략, ▲인공지능(AI) 혁신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항만, ▲ESG** 경영과 연계한 항만 미래전략,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이후 크루즈관광 세계전망을 논의하는 정규 세션과 더불어, '인천항 디자인 혁신'을 주제로 바다의 생태적·경제적·사회문화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해양공간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도 이루어진다.

*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전 세계를 통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관리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운산업 재건으로 버텨낸 것처럼, 기후변화나 자원고갈과 같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바다에서 찾아낼 것"이라며,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여러 사람의 지혜와 통찰이 한 데 모여 바다를 통해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포럼 공식 누리집(www.iio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포스터**

IIOF 2021
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1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1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
The World Calls, The Ocean Waves

IIOF
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1

일 시 2021년 6월 30일(수) ~ 7월 1일(목), 2일 간

장 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진행)

주 최 해양수산부 환경특별시 인천

주 관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연합뉴스

기조연설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위한 해양 피보팅 전략"

나오미 클라인 Naomi Klein
작가, 환경운동가

프로그램

6월 30일 (수)

10:00 - 12:00	개회식 및 기조연설
13:00 - 15:00	Session 1 [GSCM 미래전략] 글로벌공급체인망(GSCM)의 변화와 미래전략
15:30 - 17:30	Session 2 [AI/스마트항만] AI혁신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항만

7월 1일 (목)

10:00 - 12:00	Session 3 [항만네트워크] ESG경영과 연계한 주요 항만의 미래전략
13:30 - 15:30	Session 4 [해양환경] ①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② 해양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발전전략
15:45 - 17:45	Session 5 [해양관광] With COVID-19, 백신과 크루즈관광 세계 전망

특별세션 7월 1일 (목)

13:30 - 15:30	Special Session [해양 디자인] 인천항 디자인 혁신방안

* 세부 주제 및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5월 31일 사전등록 오픈

www.iiof.kr

인천국제해양포럼

코로나19로 인해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등록은 포털사이트에서 행사명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IIOF 2021) 사무국 Tel. 02-2152-5085 Email. iiof2021@ioconvex.com

참고 2 기조연사 소개

기조세션 : This Change Everything(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온라인 참석

나오미클라인
작가, 저널리스트,
환경운동가

▲ 현) 미국 러트거스 대학에서 미디어, 문화, 여성학 강의 중
▲ 현) 하퍼스, 롤링스톤, 네이션,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 기고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 더인터셉트(The Intercept) 수석 기자
▲ 시드니 평화상 수상 (2016)
▲ 기후 변화 대응 조직 350.org 이사회 임원
▲ 저서: 노 로고(1999), 쇼크 독트린(2007),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2014),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2021) 외 다수

기조세션 : 공급망 단절과 기술 활용: 모범사례에서 얻는 교훈 * 현장 참석

황승진
명예교수,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 스탠퍼드 글로벌 공급망 포럼 공동 이사
▲ OIT 그룹 지역조정 담당
▲ 생산·운영 관리 협회(POMS)의 이사진 선출

[수상]
- 경영 과학 50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개의 논문 중 하나로 선정, <공급망에서의 정보 왜곡: 채찍효과> (Information Distortion in a Supply Chain: The Bullwhip Effect)
- 국제 경영 연구소(IIM)의 "세계의 가장 저명한 경영학 교수 42인"에 선발, 2005-2006